

2018년 11월 8일, 제주시 월평동 월평동경로당, 이현정 조사.

김양언(남, 1940년생, 제주시 월평동)

- 제주시 월평동(다라곶)에서 출생, 월평동에서 11대를 살아오다가 4·3사건 때 제주시 화북동으로 피난하여 6년 간 거주하였다. 1954년 고향 마을이 재건된 뒤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제주시 월평(다라곶)에는 문수령이 산터라 불리는 곳이 있다. 문수령이는 목사의 하인이었는데, 목사는 지관으로 제주도의 명당을 찾으려 밤에 몰래 다녔다고 한다. 문수령이는 목사를 몰래 따라다니다 목사가 발견한 명당터를 알게 되었다. 이를 알아차린 목사가 문수령이가 이곳을 알아버린 이상 이 명당은 문수령이의 몫이라 하고, 그 장소에 조상의 묘를 쓰되 삼 년을 몸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다. 문수령이는 명당에 묘를 쓰자 날개가 돋고 용술을 부리게 되었다. 그런데 문수령이는 목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장안을 활보하고 다녔다. 문수령이의 잘못으로 결국 묘는 파헤쳐지게 되었는데, 시체가 소가 되어서 앞발은 꿩고 뒷발은 일어나 있는 형국이었다. 이를 알게된 제주 도민들이 나무를 한 짚씩 가져와 그 묘를 태워버리고 말았다. 그 뒤로 문수령이의 산터는 불이 나서 타게 된 장소란 의미로 불칸데라 불렸다.

[조사자] 불칸터렌 헤가지고 얘기 잇우과?

[제보자] 불칸터라는 건……. 건 그건 한라산에 불칸데라고 헌 말이어요. 건 한라산이고.

[조사자] 한라산, 한라산을 불칸데라고 험니까?

[제보자] 예.

[조사자] 게문 마을에 관련헤가지고 재미난 얘기…….

[제보자] 마을에 관련헤가지고 불칸데 말을 나왔으니까. 우리 그디 그 묘도 쓰고 뭐하고 헛는데. 그 무슨 그 저 때에 이디 목사가 왕 살았는데, 그 땅을 막 신안으로 해서 밤이 가서 보고 헌디. 그 문수령이라는 사름이, 거 문수령이터 문수령이터 허 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에 비서라났는데. 그걸 자꾸 좇아 가멍 보고 보고 허다가, 이제 그디 가기 전에 목사가 그 자리를 발견돼여 버리니까.

“아, 이젠 내 짝시가 아니다.”

해서 그 문수령이란 사름안티 묘를 쓰라고 헤 낫다는 거예요. 그디에서. 묘를 썼다가, 써서. 그 사름이 쪼끔 활공부를 쪼 헛다고 허든가, 그 뭐 날아뎡김도 헛다는 거예요. 말로 전허는 건. 날개 돌려가지고 하천 쪽을 착 용술로 넘어간다는

거죠. 한 이삼메타는 착 그냥 날려서, 거니까 그거 해서 막 뭘 허니까. 이제 그 사름이 막 용술을 부려가지고 하도 허니까. 장안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땅을 왜 불칸데로 헛느냐는 그 뜻이나 마찬가지.

그 묘가 뭐

“뭘 뭇 년, 삼 년만 춤으라.”

고 하던가

“뭇 년을 춤아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고 헌디 그렇게 안허니까. 그 활공부를 잘하여도 허면 덩겨노니까, 그 땅에 강 보니까. 그 묘를 일런 보니까. 그 시체가 소가 돼여서 앞발은 꿰려 잇고 뒷발은 일어사 잇어 낫다 해서, 이제 제주 도민이 전부 그 그걸 나무를 한 짚씩 헤 오라고 해서, 막 불테와 낫다고 해서, 불칸데라는 별명이 지왔다는 거죠.

원래는 문수령이 산탄디. 그 산 못자리를 막 불테와 불었다고 해서 불칸데. 그런 전설이 잇곡. 경해도 지금도 거기 묘가 한 이삼십 년 전에는, 우리 한라산에 다닐 적에는 잇어낫는다. 지금은 그 후손덜이 이장해 가 불었는지 뭇헛는지는 모르겄어요.

[조사자] 목사가 데리고 다니다가 산터가 좋앙…….

[제보자] 아, 겨난 목사가 그냥 가그넝에 허면은, 어떻게든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목사만 갖는디도 그 사름이 그 좀 뭇헌 공부를 허니까. 헨 막 허니까 발각돼 버리니까.

“자기 땅이 아니다.”

해서 그 목사 이제 그 사람에게 묘를 쓰는데

“삼 년을 꼭 참앙 방에만 잇어야 된다.”

고 헤였는데. 그처럼 안해서 아주 나쁜 짓을 행, 막 저 용술을 행 덩겨 부니까. 그 뜻이 다 헤여서 그디 이제 산을 팡 보니까. 뭇 앞발, 뭇 벌경한 솟송아지가 앞발은 꿰려 잇곡 뒷발은 서 잇었다가 쪼끔만 더 춤앗이며는, 거 일어상 나와 버리며는 뭇 그 사름이 아주 출세를 헐 건디 못 헤였다. 뭇 요런 전설 쪽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주 명랑하다고 해서 그디 막 도민이 그 자리를 막 해서 불테와 불었는데도, 그 자리에 가 또 산, 묘를 하나 써 잇단 말이여. 두 개 써 잇는 걸 봤어, 우리. 그 묘는 파 불었주만, 탄 사름. 그런 뜻이요 불칸데라는 뜻은.

• 핵심어: 불칸데(불탄곳), 문수령이, 목사, 묘, 용술, 소문, 불, 못자리(밋자리), 소